

계엄 이겨낸 오월정신, 세계 민주주의 모범이 되다



1 5·18 헌법전문수록 속도내야

다시 오월이 돌아왔지만, 시대는 45년 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 계엄 정국 하에서 피로 물든 밤을 지냈던 광주 시민들은 45년만에 '12·3 비상 계엄'으로 부활한 계엄의 밤을 또다시 목도해야 했다. 비상 계엄으로 5·18 악몽을 떠올린 전국의 민주 시민들은 5·18민주광장부터 광화문, 여의도까지 모여들어 '민주주의'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불법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은 탄핵을 맞았다. 위기의 순간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준 가운데에는 바로 광주 5·18 정신이 있었다.

12·3 비상 계엄 사태와 더불어 5·18을 모티브 삼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5·18 정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5·18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올해야말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결정적 순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憲法前文)은 헌법 본문 앞에 쓰여 있는 헌법의 '서문'(序文)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고 있으며,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중략)"라고 쓰여 있다. 이 중 4·19혁명의 경우 헌법에 수록되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이자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권위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 40여년 동안 5·18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비로소 5·18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

한강 '소년이 온다' 세계인에 올림
탄핵정국 속 '광주의 진실' 재조명
6·3 대선 이후 최우선 논의 나서야

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담론이 이어졌지만, 정작 실현되지는 못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대권 주자들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해 왔으나, 아직도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 24일 광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소년이 온다'의 모티브가 된 문학작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씨를 만난 뒤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언급하며 빠르면 내년 6월 개헌을 예고했다.

당시 이 후보는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죽은 사람이 산 자를 살릴 수 있는가, 결론은 과거가 현재를 살렸다. 그래서 광주는 위대한 도시다"라며 "오월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5·18 관계자들은 올해야말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공언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고 본격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원포인트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의 권리와 명예 회복과 헌정사의 초석을 다지는 '헌법정신 전문 수록'이 올해야말로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양극화된 국민 통합을 모색하며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향도자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록이 필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은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는 지난 12·3 계엄 사태로 인해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다음 정권의 역사적 책무는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이 바로 서는 '7공화국'을 열어주는 것이며,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헌법정신 전문 수록'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류빈 기자 rubi@



민주공원 앞둔 5·18 구묘역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았다. 올해 광주시가 국가 민주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5·18 구묘역의 사적지 표시석 사이로 바라본 어린이 참여객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대병원 뉴 스마트병원 건립 박차...기재부 예타 통과

새병원 추진 공식선언 4년만에

사업비 9629억...국고 확대 과제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최첨단 스마트 병원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형병원 모델을 제시하게 됐다.

이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함께 전국 최고의 상급종합병원을 두고 있는 지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무려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사업비 25%)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대상 사업 선정 및 안건 심의 결과,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새병원 사업의 예타 통과는 전남대병원이 새병원 건립을 공식 선언한 지난 2021년 새병원



전남대병원 새병원 조감도.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4년만이며, 지난 2022년 1차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아픔을 겪은 이후 2년 4개월만에 일궈낸 성과다.

새병원은 총 사업비 9629억원을 들여 22만㎡(6만 7400평) 부지에 1070병상 규모를 갖추게 되며, 설계 사업은 빠르면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2단계로 나눠진 건립 계획 가운데 1단계는 오는 2030년까지 전남의대 학동캠퍼스와 전남대간호대 부지에 900병상 규모로 신축해 주요 진료기능과 수술실·관영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의 기

능을 이전할 계획이다. 2단계는 오는 2034년까지 기존의 4개 건물(1·2·3·5동) 및 제1주차장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170개 병상 및 교육·연구시설, 첨단의료사업화지원센터 등의 기능을 갖춘 건물을 신축하게 된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0년부터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오다 지난 2021년 공식적으로 추진방향을 밝혔다. 노후한 병원의 물리·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병원 건립을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의료자원 격차 그리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새병원 요구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게 됐다.

새병원이 완공되면 전남대병원은 미래 병원의 기본 모델을 갖추면서 필수 의료 역량 강화, AI·바이오 융합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심혈관·뇌졸중·호흡기·응급의상·장기이식 5대 분야를 집중 육성시키는 최첨단 병원의 면모를 구축하게 된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2면으로 계속

이재명 오늘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서 대장동 관련 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에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정비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